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호세아 —

김창대*

1. 호세아 2:19-20[21-22]¹⁾

BHS ⁵	וְאֶשְׁתִּי לִי לְעוֹלָם וְאֶרְשָׁתִּי לִי בְצָדֵק וּבְמִשְׁפָּט וּבְחֶסֶד וּבְרַחֲמִים: 22 וְאֶרְשָׁתִּי לִי בְאֵמֻנָה וִידַעַת אֶת־יְהוָה:
『개역개정』	19 내가 네게 <u>장가 들어</u>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 <u>진실함</u> 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새번역』	19 그 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u>아내로 맞아들이고</u> ,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20 내가 너에게 <u>성실한 마음</u> 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공동개정』	21 너와 나는 <u>약혼한 사이</u> .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22 <u>진실</u> 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새한글』	19 내가 영원히 너를 나의 <u>배우자로 맞이</u> 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너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 20 내가 <u>참된 마음</u> 으로 너를 나의 배

*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kimcd36@hotmail.com.

1) BHS⁵와 『공동개정』은 21-22절.

우자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ESV 19 And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I will betroth you to me in righteousness and in justice, in steadfast love and in mercy. 20 I will betroth you to me **in faithfulness**. And you shall know the LORD.

NET² 19 I will **commit myself** to you forever; I will commit myself to you in righteousness and justice, in steadfast love and tender compassion. 20 I will commit myself to you **in faithfulness**; then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

1.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אֶרְשֶׁתִּי(에라스티크)의 번역

‘장가 들어’(『개역개정』), ‘아내로 맞아들이고’(『새번역』), ‘약혼한 사이’(『공동개정』), ‘배우자로 맞이하겠다’(『새한글』).

(2) אִמּוּנָה(에무나)의 번역

‘진실함’(『개역개정』), ‘성실한 마음’(『새번역』), ‘진실’(『공동개정』), ‘참된 마음’(『새한글』).

1.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אֶרְשֶׁתִּי(에라스티크)의 원형인 히브리어 동사 אָרַשׁ(아라스)의 강조형(피엘형)은 HALOT 사전에 의하면 ‘~와 약혼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약혼하다’라는 뜻은 사실상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새한글』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해하기 편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물론 ‘아내를 맞아들이고’라는 『새번역』의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내’라는 용어보다는 ‘배우자’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호세아의 문맥에 맞춰 새 언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자가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 אִמּוּנָה(에무나)는 호세아 2:19[21]와 2:20[22]을 함께 읽으면 이 단어가 호세아 2:19[21]에 등장하는 4개의 단어들, 즉 צֶדֶק(체데크), מִשְׁפָּט(미쉬파트), חֶסֶד(헤세드), רַחֲמִים(라하뫼)과 병치되어 이 4개의 단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4개의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

지만 צָרַךְ(체데크)와 מִשְׁפָּחַת(미쉬파트)는 외형적인 행동(외연)이고, חֶסֶד(헤세드)와 רַחֲמִים(라하뫼임)은 내면의 자세(내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배우자인 이스라엘과 참되게 대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새한글』은 ‘참된 마음’으로 번역하여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겉으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 『새한글』 호세아 2:19-20의 가르침

(1) 호세아 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지만 호세아 2장의 강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을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흐름에서 호세아 2:19-20의 가르침은 미래의 새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형식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겉과 속이 한결같은 자세로 진정한 관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강조점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교회 성도들은 참된 마음으로 자신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의지에 감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참된 마음으로 겉과 속이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단순히 형식적인 겉치레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 참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2. 호세아 4:3

BHS ⁵	עַל־כֵּן תֹאכַל הָאָרֶץ וְאֵמָלַל כְּלִי־זָשָׁב בְּתֵּי תְּשֻׁרָה וּבְעוֹף הַשָּׁמַיִם
『개역개정』	그러므로 이 땅이 <u>슬퍼하며</u> 거기 사는 자와 <u>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u> 다 쇠잔할 것이요
『새번역』	그렇기 때문에 땅은 <u>탄식하고</u> ,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u>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u> 다 야위고,
『공동개정』	그래서 땅은 <u>메마르고</u> 주민은 모두 찌들어 간다. <u>들짐승과 공중의 새도</u> 함께 야위고

『새한글』	이 때문에 이 땅이 말라 버릴 것입니다 .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곧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ESV	Therefore the land mourns , and all who dwell in it languish, and also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heavens .
NET ²	Therefore the land will mourn , and all its inhabitants will perish. The wild animals, the birds of the sky

2.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תָּאֵבַל(테에발)의 번역

‘슬퍼하며’(『개역개정』), ‘탄식하고’(『새번역』), ‘폐마르고’(『공동개정』), ‘말라 버릴 것입니다’(『새한글』).

(2) הַשָּׂדֶה וְכָל־הַיְּצִיב(베하야트 하사데 우베오프)에서 전치사 כִּ(베)의 의미에 대한 번역: 앞에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라는 뜻의 כָּל־יֹשֵׁב(콜-요쉐브 바흐)와 별개의 독립적인 명사들을 도입하는 전치사로 번역(『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כָּל־יֹשֵׁב(콜-요쉐브 바흐)의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치사로 번역(‘곧’, [『새한글』]).

2.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기존의 역본들은 תָּאֵבַל(테에발)의 원형인 אָבַל(아발)의 의미를 ‘슬퍼하다’ 또는 ‘탄식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사전인 HALOT은 이 단어를 이차적인 의미인 ‘말라 버리다(dry up)’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새한글』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말라 버릴 것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 히브리어 전치사 כִּ(베)는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כִּ of specification)’라는 뜻이 있습니다(창 7:21).²⁾ 이런 문법적 기능을 고려하여 『새한글』은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의 구체적인 예로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임을 밝히기 위해 이 문구 앞에 ‘곧’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2) R. J. Williams, *Williams' Hebrew Syntax*, 3r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100;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198.

2.3. 『새한글』 호세아 4:3의 가르침

호세아 4장은 새 언약 체결 전에 기존의 언약의 파기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전복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할 때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결과는 사람을 넘어 자연 세계까지 미친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새한글』은 땅이 멸망할 때, 땅에 사는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말라 버릴 것임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자연 세계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호세아 5:4하반

BHS ⁵	כִּי רַחַם וְנִנִּים בְּקִרְבָּם וְאֵת יְהוָה לֹא יָדְעוּ:
『개역개정』	이는 <u>음란한 마음</u> 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새번역』	<u>음란한 생각</u> 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공동개정』	<u>음탕한 바람</u> 이 들어 야훼는 안중에도 없구나.
『새한글』	<u>놀아나는 영</u> 이 그들 속에 있고,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SV	For the <u>spirit of whoredom</u> is within them, and they know not the LORD.
NET ²	for a <u>spirit of idolatry</u> is in them, and they do not acknowledge the LORD.

3.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רַחַם וְנִנִּים(루하흐 제누님)의 번역
 ‘음란한 마음’(『개역개정』), ‘음란한 생각’(『새번역』), ‘음탕한 바람’(『공동개정』), ‘놀아나는 영’(『새한글』).

3.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רַחַם וְנִנִּים(루아흐 제누님)에서 רַחַם(루아흐)의 원뜻은 ‘영’이라는 뜻입

니다. 다른 한글 역본들은 특별히 רוּחַ(루아흐)를 ‘마음’, ‘생각’, 또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 13:2-3을 함께 읽으면 רוּחַ(루아흐, ‘영’)와 לֵב(레브, ‘마음’)가 병치되어, ‘영’이 ‘마음’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영’으로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잘못된 영에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 זָנוּיִם(제누님)에 대해 HALOT 사전은 그 뜻을 ‘간음의 행위(practice of fornication)’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한글 역본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음란’, 또는 ‘음탕’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놀아나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차세대 젊은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3. 『새한글』 호세아 5:4하반의 가르침

(1) 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와 그 실상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새한글』은 호세아 5:4하반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놀아나는 영’ 때문임을 지적하여, 잘못된 영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겨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영적인 타락에 기인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4. 호세아 9:8

BHS ⁵	צָפָה אֶפְרַיִם עִם־אֱלֹהֵי נְבִיאָ פֶּחַ יִקְוֶה עַל־כָּל־דִּרְכָּיו מַשְׁטָמָה בְּבֵית אֱלֹהֵיוֹ:
『개역개정』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u>선지자</u> 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u>원한</u> 이 있도다
『새번역』	하나님은 <u>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u>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u>원한</u> 을 품었다.

『공동개정』	에브라임은 예언자의 천막 을 노리며 길목 곳곳에 덫을 놓고 하느님의 성전에서마져 거스르는구나 .
『새한글』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 그런데 그의 모든 길 위에 사냥꾼의 올가미가 놓여 있고, 적대감 이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느껴집니다.
ESV	The prophet is the watchman of Ephraim with my God; yet a fowler's snare is on all his ways, and hatred in the house of his God.
NET ²	The prophet is a watchman over Ephraim on behalf of God, yet traps are laid for him along all his paths; animosity rages against him in the land of his God.

4.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נָבִיא(나비)의 구문론적 위치에 대한 이해

파수꾼과 다른 인물로 이해(『개역개정』), BHS⁵ 사본을 교정하여 하나님을 천막으로 바꾸고 천막에 걸리는 절대형으로 이해(『공동개정』), 파수꾼과 동일 인물로 이해(『새번역』, 『새한글』).

(2) מַסְפֵּה(마스페마)의 번역

‘원한’(『개역개정』, 『새번역』), ‘거스르는구나’(『공동개정』), ‘적대감’(『새한글』).

4.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호세아 9:8은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말한다. נָבִיא(나비)를 갑자기 언급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새한글』은 נָבִיא(나비)가 ‘파수꾼’과 동일 인물임을 분명히 하여 선지자는 파수꾼으로서 적의 위협을 경고하는 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역본(ESV, NET²)의 번역과도 일치합니다.

(2) HALOT 사전은 מַסְפֵּה(마스페마)의 뜻을 ‘핍박(persecution)’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한글 번역들은 이 단어를 주로 ‘원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은 이 단어를 최신 사전인 HALOT 사전에 부합하게 ‘적대감’으로 번역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 『새한글』 호세아 9:8의 가르침

이스라엘이 타락한 배후에는 적의 위협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서 선지자의 말과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여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그물을 쳐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정의론(theodicy)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5. 호세아 10:12aα

BHS ⁵	זָרְעוּ לָכֶם לְצִדְקָה קָצִירוּ לְפִי־חֶסֶד
『개역개정』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u>공의를 심고 인애를</u> 거두라
『새번역』	‘ <u>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u> 거두어라.
『공동개정』	“목은 땅을 갈아엎고 <u>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u> 거두리라.
『새한글』	너희는 스스로 <u>공의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u> 거두어라!
ESV	<u>Sow</u> for yourselves <u>righteousness</u> ; reap <u>steadfast love</u> ;
NET ²	<u>Sow righteousness</u> for yourselves, reap <u>unfailing love</u> .

5.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לְצִדְקָה(리츠다카)와 לְפִי־חֶסֶד(레피-헤세드)에서 앞에 위치한 전치사 לְ(레)의 번역

직접 목적어 ‘~를’ 표시(『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를 위해’ 또는 ‘에 걸맞게’(『새한글』).

5.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전치사 לְ(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특별히 문장 안에

서 직접 목적어(~을, 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한글 역본과 영어 역본들(ESV, NET²) 등이 이 전치사를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전체를 보면, 미래에 새 언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 것이고(호 2:19),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의 씨를 뿌려 그들도 공의와 사랑에 걸맞게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호 2:23). 이런 의미에서 공의와 사랑을 뿌리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새한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라’라는 표현 대신에 ‘공의를 위하여 뿌리고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 거두라’라고 번역함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뿌리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수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HALOT* 사전에 의하면 **פָּרַק**(레피)는 ‘~에 따라(according to)’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충실하게 번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3. 『새한글』 호세아 10:12aα의 가르침

(1) 호세아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호 14:8). 이런 가운데 호세아 10:12aα는 인간 편에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공의와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는 자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호세아, 구문론, 문맥, 역본 비교, 새한글성경 번역.

Hosea, Syntax, Context, Translation Comparison, New Korean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5년 2월 28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3일)